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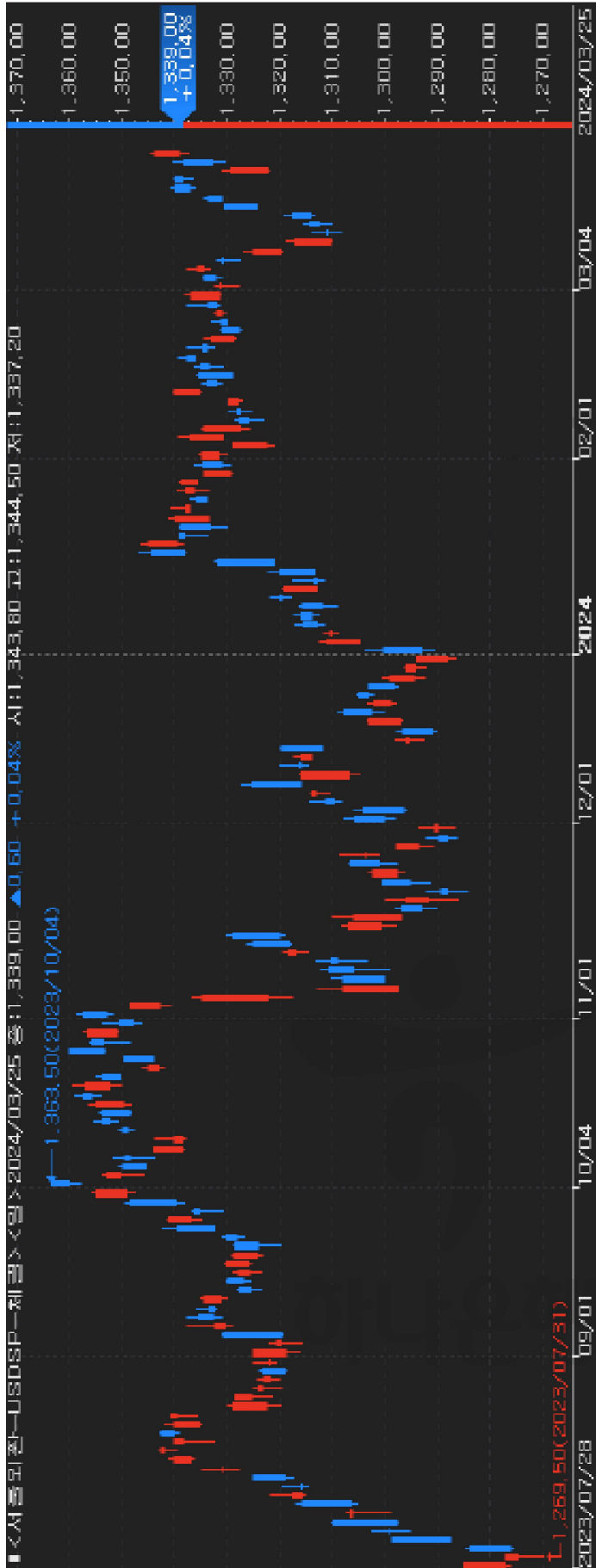
자금시장영업부

2024. 3. 25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3/18~3/22) 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3월 BOJ 금정위와 FOMC 앞둔 경계감에 따른 달러 강세 영향 속 환율은 상승 출발. 이어 BOJ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에도 완화적 기조 유지 시사로 인한 엔화 강세에 달러의 상대적 강세 나타난 측면 반영하며 추가 상승
- 중반, FOMC 결과 발표 전 관망세 속 방향성 제한되는 가운데 보험
- 후반, Fed 연내 3회 금리인하 전망 유지에 시장 내 안도감 유입되며 환율은 큰 폭 하락. 이어 주 후반, 주요국 대비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와 스위스 중앙은행의 금리인하에 따른 달러 강세 심화에 전일 급락분 되돌리며 1338.4원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31.0	1340.8	1321.9	1338.4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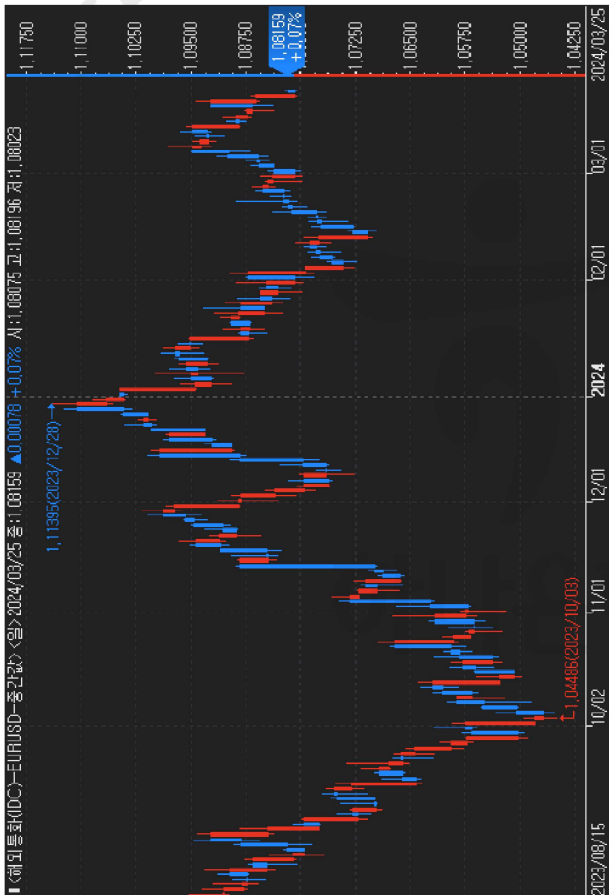
달러/원 전망

- 미국 애플렌더 연은 총재의 금리인하 발언 등 도비시 기조를 보인 연준 방향성 예도 지난주 깜짝 금리인하를 단행한 스위스중앙은행 영향 등으로 투자자들의 ECB 금리인하 베팅이 강화된 영향 등이 상대적 달러 강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여기에 ECB, BOE 등 주요국 중앙은행 인사들의 연이은 금리인하 언급 등도 글로벌 달러 강세를 자극하며 달러 강세 견인할 것으로 예상
- 여기에 위안화 절하 용인 가능성 등도 원화 환율 상승 요인으로 판단
- 반면, 최근래 고점 수준을 지속하는 환율에 대한 외환당국의 경계감 강화 등은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

예상거래범위
1,335원 ~ 1,348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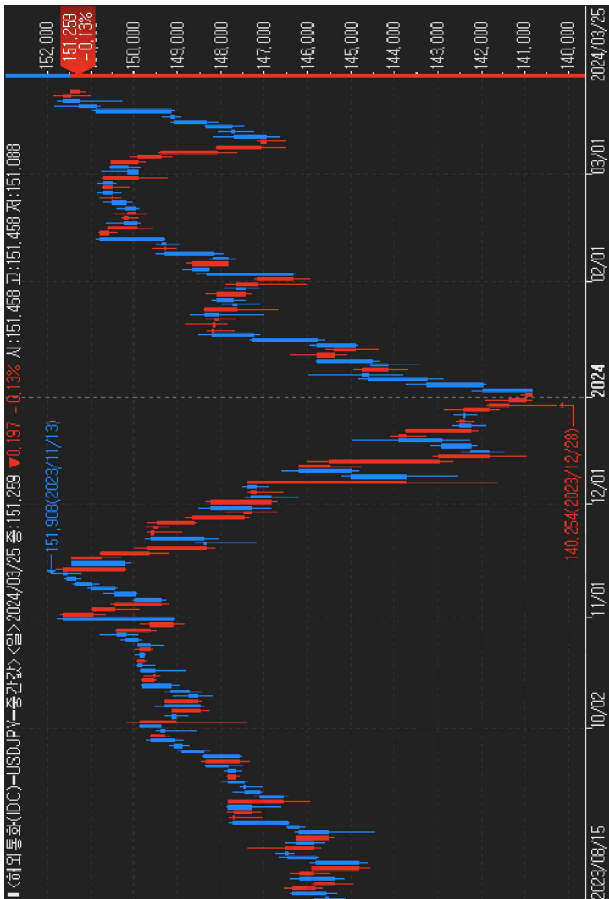
엔·유로화 동향 (3/18~3/22)



유로화 동향

- 주초, 유로존 2월 CPI가 전년 대비 2.6%로 확정되며 디스인플레이션 추세에 따른 ECB 금리인하 기대 지속되는 가운데 유로화는 약세 출발. 이어 독일 3월 경기대지수 개선에도 BOJ의 비둘기 긴축으로 인한 상대적 달러 강세에 약세 지속
- 중반, 예상보다 비둘기적으로 평가된 FOMC 결과를 반영한 미 국제수익률 금락과 달러 약세 영향 속 강세 전환
- 후반, 스위스국립은행의 선제적 금리인하 조치와 미국 2월 제조업 PMI 호조 등이 달러 강세 견인하면서 약세로 재차 전환. 이어 주 후반, 물타 중앙은행 총재의 4월 금리인하 가능성 언급에 유로화 약세 압력 가중되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동락
1.0888	1.0943	1.0802	1.0808	-0.0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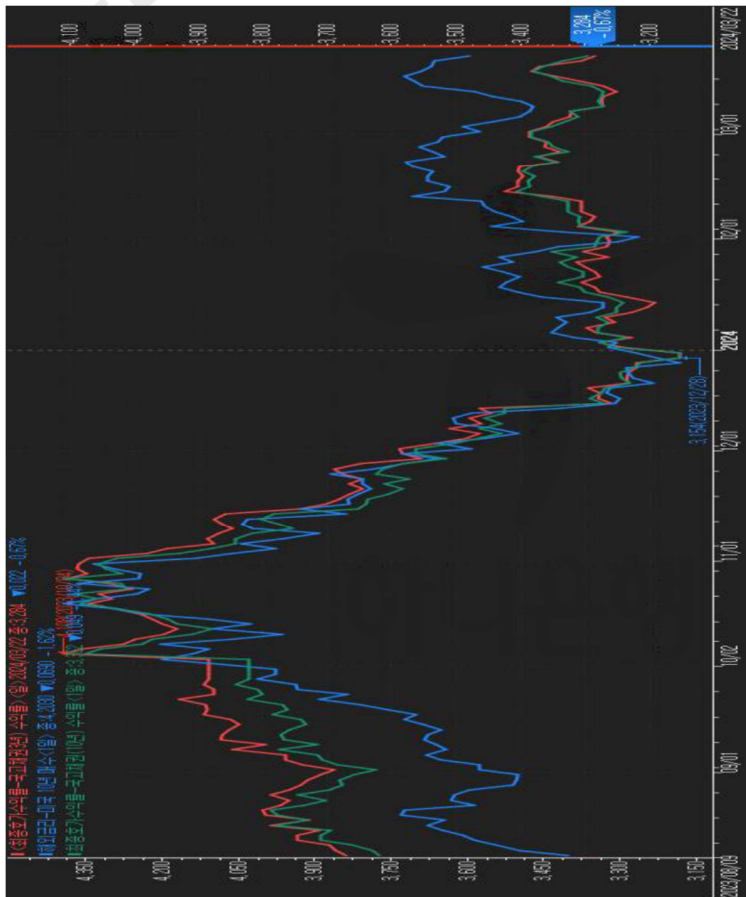
엔화 동향

- 주초, BOJ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와 YCC 정책 폐기 전망에도 국제매입 소식에 엔화는 약세 출발. 이어 BOJ 금정의 금리인상 결정에도 BOJ 총재가 인화적 여건이 유지될 것임을 시사한 영향으로 약세 지속
- 중반, 연준의 연내 3회 금리인하 가능성은 유지되었으나 미-일 금리차가 지속될 것이라 측면이 부각되며 약세 심화
- 후반, BOJ 총재의 ETF 즉각 매입 보류 등 다소 도비시한 발언에 약세 지속되는 모습. 주 후반, BOJ 정책기조 변화에도 달러당 151엔선 상회하는 기온테 일본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 유입된 영향으로 추가 약세 제한되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동락
149.1	151.9	148.9	151.5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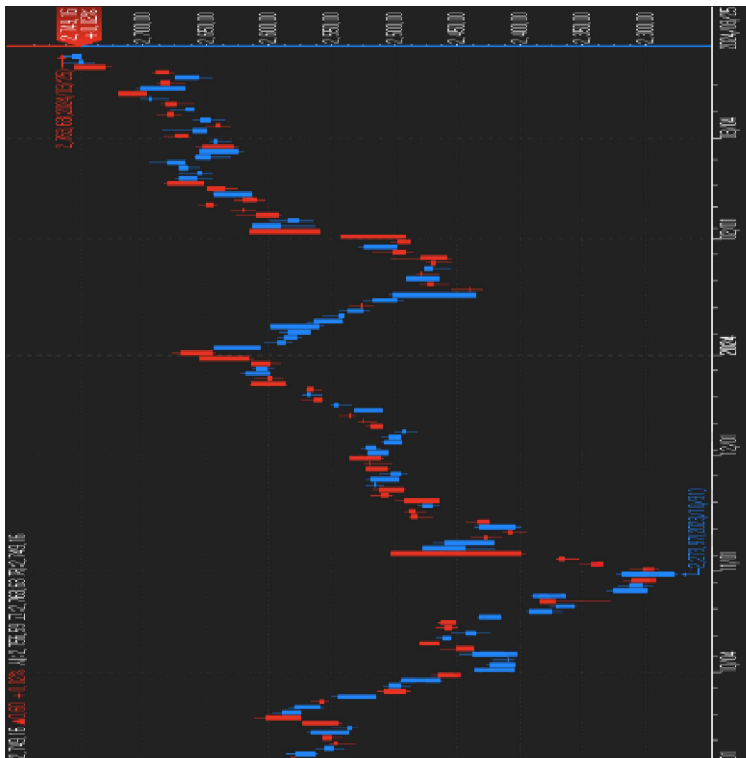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3/18~3/22)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국고채 금리는 주중 예정된 BOJ, FOMC에 대한 경계가 이어진 가운데 국채시장 약세를 반영, 국고채금리 상승 출발. 이어 BOJ 금리 정상화 결정 등에 따른 영향 반영 속에 최근 유가 상승 흐름 등으로 상승 지속
- 중반 들어, FOMC에 대한 경제심리 강화에도 최근 국제시장 약세에 대한 반발 매수세 등 수급 우위 영향 반영되며 하락 전환
- 후반 들어, FOMC 회의 결과 시장 예상과 달리 기준 3회 인하 기조를 이어가며 전반적으로 비둘기적 해석된 영향 반영에 따라 국내외 금리 하락 지속. 이어 주 후반, 중국 위안화와 주가 지수가 급락한 영향에 따른 위험회피 영향 및 외국인 국채선물 매수 강화 등으로 하락 추세 이어지며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코스피는 주중 예정된 FOMC와 일본 금정위에 대한 경제심리에도 금융 투자 중심 기관 매수세에 상승 출발했으나, 상당은 제한된 국면 시현. 이어 BOJ의 금리인상 단행 결정 속 YCC 폐지 등이 결정되었으나, 국내 증시에 대한 영향은 제한된 가운데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여전히 불확실성 등으로 하락 전환 중반 들어, 엔비디아의 삼성 반도체 협력 기대감 등이 투자심리를 개선시킨 가운데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상승 모멘텀 강화된 양상
- 후반 들어, 3월 FOMC에서 미국의 강한 경기 예상에도 다소 도비시한 기준 3회 금리인하 전망 제시 속 반도체 업황 기대감 등으로 코스피는 2750선까지 상승. 이어 주 후반,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 강화에도 주중 주요 이벤트 소화 후 모멘텀 부재 속 소폭 하락 전환하며 마감